



Contents

01

Group Overview

- History
- Business
- About

02

Brand Portfolio

Outdoor & Sports
Golf
Menswear
Womenswear
Lifestyle
Accessories

Workwear
Sustainable
Premium
ON/OFF RETAIL

History

코오롱 그룹



History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

1973	코오롱스포츠 론칭
1985	잭니클라우스 론칭
1989	엘로드클럽, 브렌우드 론칭
1990	엘로드 론칭
1995	헨리코튼 라이선스 계약
2007	시리즈 론칭
2009	커스텀멜로우 론칭 캠브리지, 코오롱패션 합병
2010	쿠론 인수
2011	코오롱인더스트리, 캠브리지 코오롱 합병 혼마 국내 총판 전개
2012	자덴드슈에뜨, 슈콤마보니 인수 럭키슈에뜨, 래코드 론칭
2015	커먼그라운드 오픈
2016	왁 단독브랜드로 론칭
2017	24/7 팬츠 론칭

2018	이로 공식 수입
2019	아카이브 앱크 론칭
2020	지포어 국내 공식 공급 계약 볼디스트 론칭 코오롱스포츠 서브 브랜드 LTEKS 론칭 24/7 팬츠에서 '24/7'로 브랜드 론칭 '더카트골프' 온라인 셀렉숍 오픈
2021	골든베어 론칭
2022	OLO릴레이마켓 론칭 프리미엄 낚시웨어 브랜드 웨더몬스터 론칭 발렉스트라 공식 수입 전개 K.O.A 인수
2023	케이트 공식 수입 전개
2024	N21 공식 수입 전개 포스트아카이브팩션 전략적 투자
2025	피터밀러 파일럿 론칭 디아티코 공식 수입 전개 드롤드무슈 공식 수입 전개 헬리눅스웨어 론칭

패션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

국내 패션 문화 선도, 글로벌 역량 제고 및 순수 국내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 진출

건설 · 유통 · 레저

코오롱글로벌

건설, 유통, 무역부문, 호텔과 리조트 및 부동산 종합서비스까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종합 모빌리티 사업을 선도하며 수입차 및 전기 모빌리티 브랜드 수입 판매

그린나래

천안 우정힐스CC 및 춘천 라비에벨 골프&리조트 운영

스위트밀

디저트 문화를 선도하며 선진 외식 문화와 프리미엄 먹거리 제공

핵심소재

코오롱인더스트리

산업자재, 화학 및 필름·전자 재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

코오롱스페이스웍스

항공우주, 방산 및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고성능 첨단 복합소재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

코오롱글로벌텍

자동차 인테리어, 자동차 부품, 생활소재, 향균소재, 최첨단 신소재를 생산

바이오 헬스케어 · IT

코오롱생명과학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인 바이오신약 사업 진행

코오롱제약

의약품, 의약부외품, 건강보조식품 제조, 도매 등 완제 의약품 제조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인대손상치료, 연골재생촉진제의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세포 유전자치료제 개발

About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1957년 국내 최초의 나일론 생산을 시작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주)코오롱을 전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주)코오롱의 제조사업 부문에서 분할되어 현재 산업소재, 필름/전자재료, 화학 및 패션의 4대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코오롱FnC는 1973년 '코오롱스포츠'를 시작으로 골프, 남성, 여성, 잡화는 물론 해외 프리미엄 레이블까지 30여 개 브랜드를 보유한 국내 대표 패션 기업입니다. 우리는 트렌드를 이끌고 취향을 만듭니다. 예민하게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고, 새로운 시장을 발견합니다. 매 시즌 우리의 컬렉션은 달라지지만, 변화하면서도 변함 없는 기본을 지킵니다. 우리는 문화가 녹아 든 패션을 지향합니다. 음악, 미술, 대중문화의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파트너들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우리는 유연하지만 진중합니다. 세상이 패션계에 던지는 질문에 회피하기보다 남다른 해법을 모색합니다. 자원으로서의 패션이 가장 이롭게 순환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민하고 도전합니다.

패션

코오롱스포츠로 대표되는 아웃도어 외 골프, 컨템포러리, 액세서리, 유니섹스 캐주얼, 해외 프리미엄까지 패션 전반에 걸쳐 다양한 카테고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무이하게 업사이클링 브랜드를 론칭하는 한편, 젊고 감각적인 워커들을 위한 워크웨어 전문 브랜드를 선보이며 남다른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통

온라인 플랫폼 코오롱몰(www.kolonmall.com)을 통해 패션은 물론 시장에서 주목 받는 뷰티, 리빙, 가전 카테고리를 선보입니다. 300여 개 브랜드를 고객 데이터에 맞춰 추천하고, 온·오프라인 통합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이커머스에 최적화된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골프 온라인 편집숍 '더카트(www.thecart.com)'는 다양한 스포츠 브랜드를 전문적인 콘텐츠와 함께 소개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국내 최초 컨테이너몰을 론칭, 패션과 식음료, 문화가 어우러진 스트리트형 편집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OLON SPORT

 WEATHER MONSTER

 Helinox

 E L O R D
C L U B

 G/FORE

Golden Bear®

HONMA

PETER MILLAR

 WAAC

BRENTWOOD

CAMBRIDGE
MEMBERS

customellow

Henry Cotton's

series;
urban generation

LUCKY
CHOUETTE

24/7
series

Archivépké

COURONNE

SUECOMMA BONNIE

 *Baldest*

OLO **RELAY MARKET**

 RE;CODE

Drôle de Monsieur

I R O

KHAITE

N°21

THEATICO

Valextra

 COMMON
GROUND

 THE CART

Brand Portfolio

01 Outdoor & Sports	KOLON SPORT WEATHER MONSTER Helinox
02 Golf	G/FORE Golden Bear WAAC PETER MILLAR ELORD CLUB HONMA
03 Menswear	BRENTWOOD customellow CAMBRIDGE MEMBERS Henry Cottons series;
04 Womenswear	LUCKY CHOUETTE
05 Lifestyle	24/7

06 Accessories	Archivépké COURONNE SUECOMMA BONNIE
07 Workwear	Boldest
08 Sustainable	RE;CODE OLO Relay Market
09 Premium	IRO The Attico Drôle de Monsieur Valextra KHAITE N 21
10 ON/OFF RETAIL	COMMON GROUND KOLON MALL THE CART

01 Outdoor & Sports

 **KOLON SPORT**

YOUR BEST WAY TO NATURE.

코오롱스포츠는 1973년 자연 속에서 모험과 도전을 즐기기 위해 탄생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반세기 동안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코오롱스포츠는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위대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Trust KOLON SPORT



 **WEATHER MONSTER**

웨더몬스터는 어떠한 날씨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피싱 웨어 라인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기술의 한계를 넘어, 앵글러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편안함과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향하는 곳은 기능과 디자인의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차원의 피싱 웨어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Helinox**

WEARABLE GEAR

헬리노스만의 기술과 미학이 쌓아올린 기어(Gear)의 역사,
그 필연적 확장으로 탄생한 헬리노스 웨어(Helinox Wear).

헬리노스 웨어(Helinox Wear)는 아웃도어에 기반한
헬리노스의 철학과 DNA를 옷의 속성에 옮겨 구현한
웨어러블 기어(Wearable Gear)입니다.



G/FORE

세계적인 디자이너 Mossimo Giannulli가 2011년 LA에 런칭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지포어(G/FORE)는 '골프의 전통성을 존중하는 파괴적인 럭셔리(Disruptive Luxury)'를 브랜드 방향으로 전개하는 젊은 감각과 모던한 디자인의 프리미엄 골프 브랜드입니다.

Golden Bear®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롭고 순수한 감성의
Golden Generation을 위한 스트리트 골프 웨어입니다.
자신의 스타일과 감각을 표현하고 구태의연하지 않는
쿨 함을 가진 젊은 골프 비기너들이 자신만의 색깔 있는
플레이를 즐길 수 있도록 개성 있는 골프를 디자인합니다.



웍은 필드에 나서는 즐거움을 더해주고 즐겁게 승리하는
골프를 제안하는 것을 차별화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승리를 향한 염원을 담아 '반드시 승리하라'는 의미인
Win At All Costs!의 앞 글자로 만들어졌으며, 상대방의
집중력을 흐리게 해 이긴다는 역발상을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골프가 즐겁고 유쾌한 스포츠가 되길
바라는 반전의 위트는 웍만의 스토리가 됩니다. 캐릭터인
와키(WAACKY)는 이스토리의 주인공이자 엉뚱하고 장난기
많은 악동으로 당신의 수호천사가 될 것입니다. 제품은
계절별 고기능성 소재를 사용하고, 스윙과 어드레스에
최적화된 요소를 갖추었습니다.

DELORD C L U B

엘로드클럽은 1989년 런칭 이래 수많은 투어 우승 프로를 배출하였으며, 세계 어느 클럽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기술력을 갖춘 수제 골프클럽 브랜드입니다. 또한 비거리를 고민하는 골퍼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클럽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로 최고의 반발계수를 자랑하는 고반발 드라이버 DYNAS를 탄생시켰고,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수출하며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고반발클럽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HONMA

혼마골프 클럽은 일본 야마카타현 사카타시(市) 자사공장에서 30년 이상 숙련된 장인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으로 뛰어난 개발력과 품질을 자랑합니다. 브랜드에 열정을 지닌 전 연령대의 '혼마니아(HONMANIA)'에게 맞는 클럽과 용품을 선보이며 하이엔드 프리미엄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탑 프로 및 유망주들에 대한 글로벌한 지원과 프로모션을 진행함으로써, 혼마골프는 골프에 대한 즐거움과 열정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럭셔리 퍼포먼스웨어 피터 밀러(Peter Millar)는 2001년 미국에서 시그니처 캐시미어 스웨터 한 벌로 시작된 고급 의류 및 액세서리 브랜드입니다. 창립 이래 우아함과 세련된 스타일, 뛰어난 장인정신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2012년 럭셔리 패션 그룹 리치몬트 그룹에 인수됐습니다. 현재 피터 밀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웨어 외에도 테일러드 의류, 리조트 의류,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군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PETER MILLAR



BRENTWOOD

도시생활자를 위한 어반 비즈니스 라이프웨어.

19세기 미국의 유토피아 공동체 '모던타임즈'는 다 함께 즐겁게 일하면서 자유와 낭만을 추구하고 개성을 중시하던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브렌우드는 바로 '모던타임즈'가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1989년에 론칭한 브렌우드는 이 '모던타임즈'의 자유롭고 개성을 중시하는 철학에서 출발했습니다. 도시 생활자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미국 특유의 실용성을 세련된 스마트웨어로 제안하는 합리적인 어반 비즈니스 라이프웨어 브랜드입니다.

customellow

딱딱함 (Custom)과 말랑함 (Mellow)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개념이 합쳐진 이름처럼, 전통적인 것에 소프트한 감성을 더한 남성복입니다. 패션을 기반으로 클래식에 위트를 더해 커스텀멜로우만의 문화를 선보입니다. 이를 위해 장인 정신과 현대의 기술을 조화롭게 짝짓는 동시에, 새로운 경험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영역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EL 02-1234-5678



CAMBRIDGE MEMBERS

캠브리지 멤버스는 40년 전통의 대한민국 대표 남성복 브랜드로서,
한국 남성들에게 시대를 대표하는 클래식 문화의 정석을 제안합니다. 정통 신사복을 대표하는
브리티시 디자인부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MTM 맞춤 서비스, 살롱 문화까지
품격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Henry Cotton's

헨리 코튼은 그 자체로 라이프스타일이 된 전설이자 골프 챔피언이었던 헨리코튼 경(1907~1987)에게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헨리코튼 경의 철학과 스토리를 담은 옷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이탈리아의 여유와 멋(Sprezzatura)을 제안하여,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영국 스타일에 이탈리아의 감성과 품질을 접목한 유러피안 감성의 Upper-Level Casualwear를 추구합니다. 또한 세련된 멋을 추구하는, 성공한 현대 남성의 일상복으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series;

urban generation

'시리즈'는 2007년 런칭한 어반 빈티지 캐주얼 편집 브랜드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패션과 문화에 가치를 부여하는 프로페셔널 남성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스타일링을 제안하며, 매 시즌 '시리즈매거진'을 통해 시대 철학과 문화, 아날로그 감성을 재해석한 가치를 전달합니다.

또한 '웜하트 캠페인'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왔으며, 2020년부터는 '웜하트 필름 펀드'로 확대하여 다양한 문화와 소통하는 크로스 컬처 브랜드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LUCKY CHOUETTE

럭키슈에뜨는 시대에 맞는 독창성(uniqueness)을 제안하며, 고객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클래식한 감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비언어적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감성의 개성 있고 스마트한 캐주얼을 제시합니다. 이를 위해 하이브리드와 스트리트적인 요소, 그래픽, 장난스럽고 유머러스한 아트워크를 불러들이며 다양한 문화와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24/7

‘24시간 7일 편안함을 입는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개 중인 24/7은 Indoor와 Outdoor에서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아이템들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한 삶을 구성하는 요소 사람, 공간, 일상을 고려하여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Archivépke

아카이브애프크는 '기록 보관소'라는 뜻을 가진 archive와 '예리한 감각으로 사람을 연구하다'라는 문장의 약자인 épke: études for people with a keen sense의 합성어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연구하며 이를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메시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스타일리시하면서 편안함을 원하는 패션 피플의 갈증을 해소해 줌으로써, Cool&Comfort의 경계를 무너뜨린 Effortlessly Cool Attitude를 추구합니다. 심플하고 클래식한 에센셜 아이템, 유연한 소프트 레더, 다양한 스타일과 조화로운 컬러 톤을 기반으로 주중과 주말 구분이 없는 스타일리시 아이템을 제안합니다.



쿠론은 단순하게, 유행을 타지 않는, 강렬한 색상(Simplicity, Timeless Chic, Exquisite Color)을 키워드로 삼는 모던 럭셔리 핸드백 브랜드입니다.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수행해야 하는 당대 여성들이 항상 동시대적인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스스로에 자부심을 가지도록 응원합니다. 핸드백 외에도 쿠론의 이름으로 제안하는 슈즈, 기타 소품 등은 일상에 지친 고객에게 새로움을 접하는 즐거움과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자신감을 선사합니다.

COURONNE

SUECOMMA BONNIE

슈콤마보니는 일상의 다양한 착장을 완성하는 컨템포러리한 스타일의 패션 슈즈를 제안합니다. 큐빅, 진주 등 화려한 장식과 구조적인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힐부터 스트리트 무드에 걸맞는 스니커즈까지, 패션에 민감한 여성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최적의 조합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아이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07 Workwear



워커(Worker)와 함께 만드는 리얼 워크웨어.

볼디스트는 각 산업 분야에서 실제 일하는 작업자들과 함께 상품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워크웨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작업(work)이 지닌 높은 가치를 상품으로 표현합니다.

또 시장 내 기존 워크웨어와는 차별화되는 고기능성 소재와 전문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워크웨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워커들의 옷을 향한 끝없는 탐구를 이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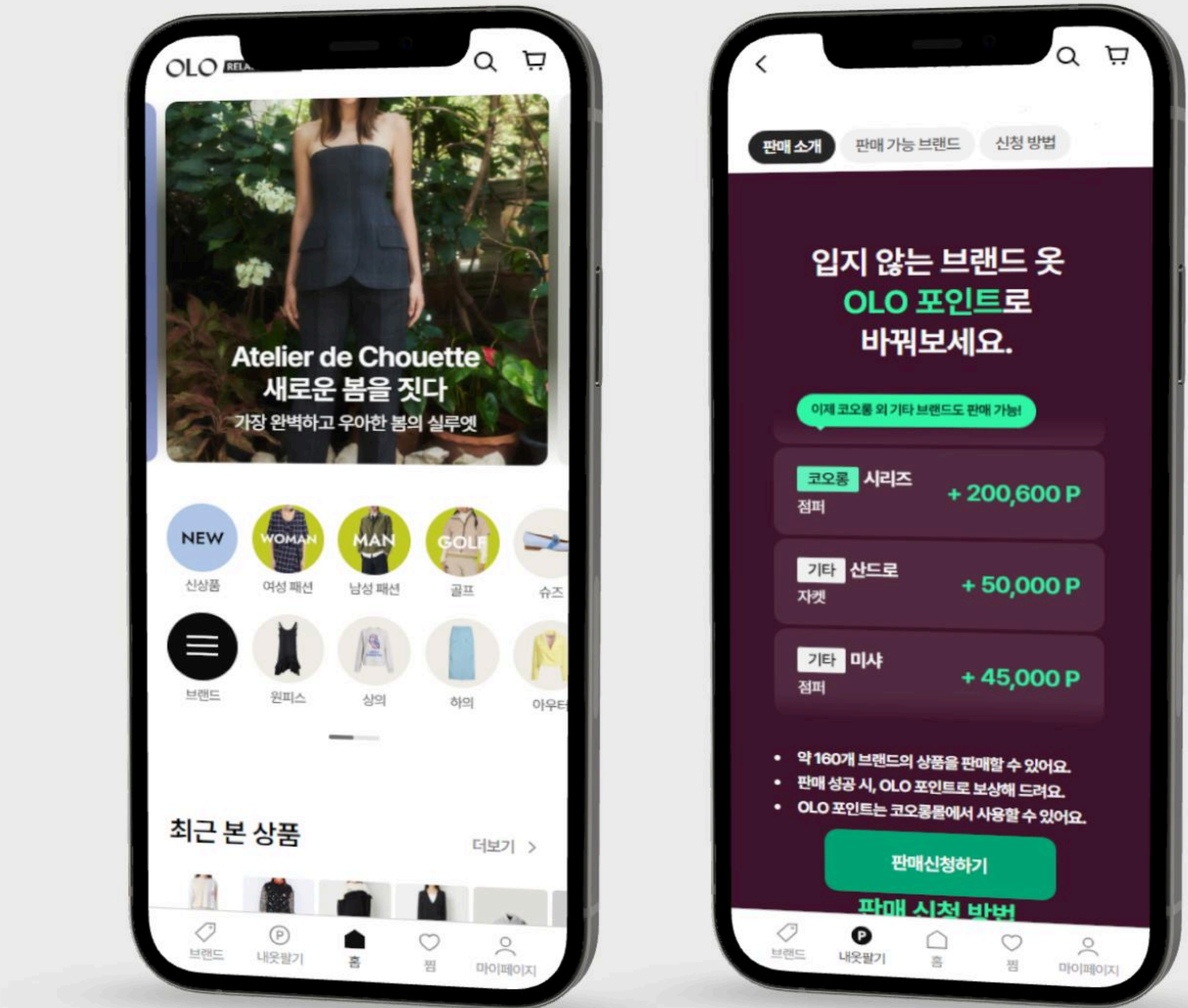


RE:CODE

래코드는 'This is not just Fashion'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012년 론칭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속 가능한 패션(Sustainable Fashion) 브랜드입니다. 버려지는 의류 재고를 재조합해 새로운 옷으로 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래코드는 패션의 고정관념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쓰임을 만들고, 환경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무브먼트를 전 세계로 이끄는 활동을 합니다.

OLO RELAY MARKET

‘코오롱물’과 함께 국내 패션기업 최초의 중고 거래 서비스인 ‘오엘오 릴레이 마켓 (OLO Relay Market)’은 코오롱FnC가 자사 브랜드 제품을 중고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입니다. ‘오엘오 릴레이 마켓’ 사이트를 통해 양질의 중고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재판매합니다. 소비자들은 ‘오엘오 릴레이 마켓’을 통해 코오롱FnC의 중고 의류를 판매 및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 브랜드의 중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매-사용-판매-보상으로 이어지는 양질의 중고 거래 경험을 제공하고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일조하고, 나아가 패션 상품의 사용 주기를 연장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현합니다.





I R O

이로는 모던한 여성에게 어울리는 가장 도시적인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2005년 론칭 이래 클래식한 아이템에 조형적인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파리지앵 감성이 묻어나는 매력적인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유의 고급스러움과 캐주얼한 느낌을 여성적이고 현대적인 실루엣으로
해석하며, 무심한 듯하지만 은근한 멋스러움이 잘 드러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다채로운 패브릭과 시그니처가 되는 컷아웃 디테일은 특별한 장소뿐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도록 연출합니다.

디아티코는 2016년 인플루언서 출신의 질다 암브로시오(Gilda Ambrosio)와 조르지아 토르디니(Giorgia Tordini)가 공동 설립한 이탈리아 럭셔리 디자이너 브랜드입니다. 소재, 색상, 패턴을 실험적으로 조합해 대담한 실루엣과 현대적인 구조미를 담은 페미닌 룩을 선보입니다. 디아티코는 2021년 글로벌 패션 검색 플랫폼 LYST가 선정한 '주목할 만한 패션 브랜드'에 이름을 올렸으며, 2025S/S 시즌에는 '전 세계 톱10 런웨이 컬렉션' 중 하나로 주목받았습니다. 현재 전 세계 200여개의 최고급 리테일러, 부티크, 콘셉트 스토어에서 판매 중이며 해외 셀러브리티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THE ATTICO





Drôle de Monsieur

드롤 드 무슈는 2014년 프랑스 디종 출신의 디자이너 듀오
대니 도스 산토스(Dany Dos Santos)와 막심 슈와브(Maxime Schwab)가
설립한 브랜드입니다. 드롤 드 무슈는 프랑스어로 '독특하고 재미있는 남자'를
뜻하는 브랜드명과 함께 'Not from Paris Madame'이라는 상징적 슬로건을
내세워 파리 중심의 패션 문법에 위트 있게 반문하는 브랜드 철학을 드러냅니다.
1970년대 스포츠웨어 스타일과 1990년대 프랑스 힙합 스트리트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레트로 감성의 유니크한 일상복을 제안합니다.





Valextra

이탈리아 럭셔리 가죽 브랜드 '발렉스트라(Valextra)'는 공예적 요소와 혁신을 결합한 '밀라노 럭셔리 스타일'의 정수를 보여주는 브랜드로 국내외 두터운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렉스트라 제품은 가볍고 구조적이며 심플한 실루엣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미니멀한 유선형 라인은 밀라노에서 기원된 절제와 신중함을 반영함과 동시에 브랜드 특유의 대조적인 디자인 터치를 통해 차별화된 럭셔리 정수를 보여줍니다.



KHAITE

KHAITE

KHAITE는 남성성과 여성성, 강인함과 부드러움, 구조와 유동성, 클래식과 모던함 등 상반되는 개념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여성 의류, 액세서리를 선보이는 브랜드이며, 각각의 아이템은 관능과 편안함의 시대를 초월한 시그니처를 구현하면서 상반된 요소들의 신선한 균형을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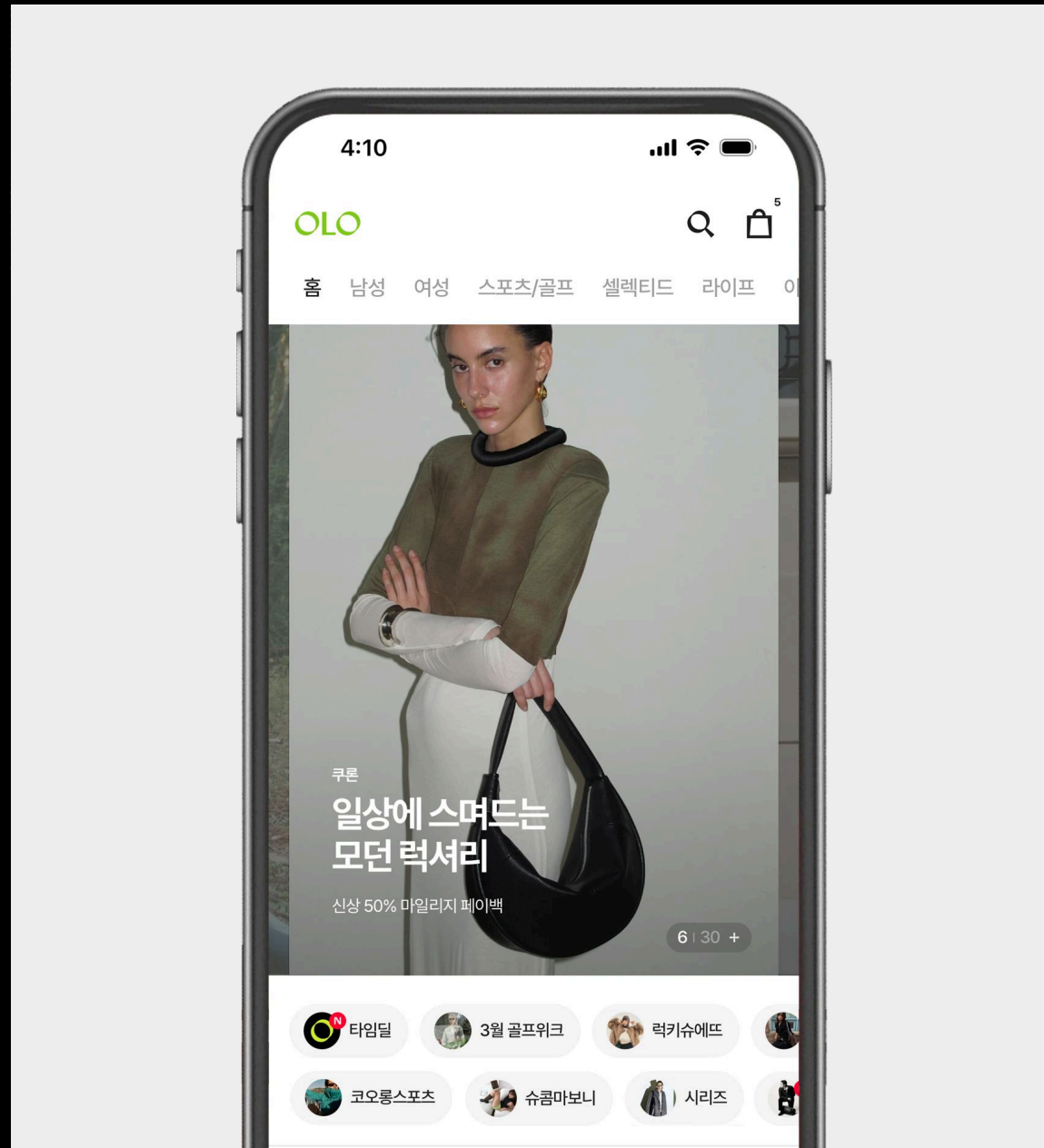
N°21

N°21은 2010년 알레산드로 델아쿠아(Alessandro Dell'Acqua)가 설립한 이탈리아 브랜드로, 현대적인 감각과 여성스러움을 담은 컬렉션을 전개합니다. 특별한 소재와 강렬한 디자인을 결합한 니트웨어, 로고 티셔츠, 드레스 등이 대표 아이템이며 핸드백, 슈즈, 액세서리까지 완성된 토탈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커먼그라운드 는 200개 컨테이너로 만든 국내 최초 컨테이너 복합 쇼핑몰입니다. 2015년 유동 인구가 적었던 서울 건국대 입구의 택시 차고지 부지를 활용, 새로운 개념의 마켓으로 탄생했고, 이제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서 각종 문화예술이 함께 하는 '청춘들의 공간'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커먼그라운드는 국내외 로컬 브랜드와 젊고 역량 있는 신진 디자이너들의 패션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뮤직, 아트, 매거진 등 다양한 영역의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제시합니다.



KOLON MALL

코오롱몰은 코오롱인더스트리 FnC 부문의 30여 개 자사 브랜드와 250여개의 국내외 브랜드가 함께하는 패션&라이프스타일 온라인몰입니다. 많은 고객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품격 있는 브랜드를 온라인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HE CART

STYLISH SPORTS CULTURE

더카트는 스타일리시한 스포츠 컬처를 베이스로한 큐레이팅 셀렉숍을 표방합니다.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트렌디한 스포츠 브랜드는 물론 헤리티지를 갖춘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까지 더카트만의 기준으로 큐레이션된 다양한 브랜드를 전문적인 콘텐츠와 함께 소개합니다.

